

202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 31.(화), 14:00 ~ 16: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
- ▣ 안 건 : 총 2건
 - 심의 1건(홍성 홍주읍성 북문지 동측성벽 정비)
 - 보고 1건(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사업)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결방식, 제8조 제척신청 등의 처리, 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자문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2. 또한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1 「홍성 홍주읍성(사적)」 복문지 동측성벽 정비

【보고사항】

- 2 「경복궁(사적)」 광화문 월대 복원사업

【심의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3-1차-001)

1. 홍성 홍주읍성(사적) 북문지 동측성벽 정비

가. 제안사항

- 충남 홍성군 소재 「홍성 홍주읍성」 북문지 동측성벽 정비 설계변경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해 사업은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성 홍주읍성' 북문지 동측성벽 정비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2022년 제8차 복원정비분과 심의 결과(조건부가결) 등에 따른 설계변경도서에 대해 수리기술위원회 추가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구분	결과	내 용
2022년 제8차 (22.11.22.)	조건부 가결	- 2차 석성은 1차 석성 상부 계획선보다 단을 낮추어 동일한 높이로 정비하도록 함. - 현재 제시한 자료로는 토성의 축조 방식 및 규모 등에 대해 규명이 어려우므로 과도한 정비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성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번지
 - 지정일 : 1972.10.14.
 - 그간연혁
 - 2015년 :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 2018년 :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성곽발굴조사 지역 정비 기본계획(홍성군)
 - 2019~2020년 : 홍성 홍주읍성 북문지 복원 공사
 - 발굴조사 현황
 - 2007~2009년 : 홍주읍성 내 의병공원조성부지 발굴조사
 - 2008년 : 북문지·서문지 발굴조사
 - 2010년 : 홍주성 남문지 발굴조사
 - 2011년 : 홍주읍성(추정) 객사터 발굴조사
 - 2015년 : 홍주읍성 내(추정) 연지/수문 및 주변성벽 발굴조사
 - 2016~2017년 : 북문지 및 주변성곽 발굴조사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홍성 홍주읍성 북문지 동측성벽 정비
- 사업지침 :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북문지 동측성벽 구간을 정비한다.
- 사업내용 : 석성 및 토성 복원, 자연석 배수로 설치, 근대건축물 유구 정비 등
- 설계변경개요
 - 설계변경금액 : 2,245,250천원(변동없음)
 - 설계변경사유 : 발굴유구 및 현장 확인, 기술지도(3차) 결과에 따른 성벽 정비 범위와 방식 조정, 지정 추가, 배수로 변경, 근대 유구 정비 제외 등
 - 설계변경내용

당초 설계	변경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성 정비(L=104.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성 정비 후 하부 복토(1.2m) - 조선 1차 성벽 정비(H=2.5~2.8m) 후 전면예 조선 2차 성벽 경사로 형태로 정비(H=0~1.8m) ○ 토성 정비(L=4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 정비(H=2.0m) 후 하부 복토(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성 정비(L=100.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성 정비 후 체성 전면 지대석 노출 정비 - 조선 1차 성벽 정비(H=3~4m) 후 조선 2차 성벽 경사로 형태로 정비(1.5~4m) ○ 토성 정비(L=7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 정비(H=2~2.3m) 후 하부 복토(1m) ○ 말뚝지정 및 잡석지정 반영
○ 자연석 배수로 설치(L=235m)	○ 자연석 배수로 설치(L=228m)
○ 유구정비(근대건축물, 배수로)	○ 유구정비 제외

라. 관계전문가 의견

<기술지도(○○○, ○○○, ○○○) / 2022.6.~2022.9.>

(1차 / 2022.6.27.)

- 잔존 지대석이 비교적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대석 통과선을 유지함
- 치성을 중심으로 동측성벽은 초축 시기 축조기법을 적용하고, 치성을 비롯한 서측 성벽은 조선 후기에 보축한 성벽이므로 조선 후기 성벽(허튼층쌓기)으로 축조함
- 초축시기의 석축 성벽의 규모가 설계도서 상에서 과대하게 설계되어 조정 필요함
- 고려시대 토축성벽은 관측다짐하여 축조, 연약지반은 말뚝 및 잡석지정 보강함

(2차 / 2022.8.5.)

- G.L.선은 최대한 낮춰 지대석 상면을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치성 서측 구간은 지내력 검사 결과 미약함으로 말뚝 및 잡석지정 후 시공함
- 2차 성벽의 복원 높이와 고려시대 토성 높이는 도면상에서 검토 후 결정
- 정비 공사 구간의 근현대 유구는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3차 / 2022.9.13.)

- 기존안은 1차성과 2차성을 나란히, 토성 일부 성토, 근대 건물지를 노출하여 정비 하고자 한 건임
-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바, 2차성은 1차성에 완곡하여 북문지 전에서 형상이 완료 되며, 근대 건물지는 읍성 정비와 관련성이 적어 복토하는 것을 검토하였음

- 성곽 정비 중 여러 시대가 겹치는 경우가 드물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데는 높이, 크기 차이, 재료의 차이를 두어 그 차이를 인지시키고, 안내판을 통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되었음
- 이에 따라 제안한 변경안으로 하되, 토성, 1차성, 2차성이 동선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포함했으면 함, 또한 유구 정비면 사이의 배수 계획도 필요함

<현지조사(○○○, ○○○ 복원정비분과 위원) / 2022.10.4.>

- 금회사업은 발굴조사(2017년)에서 체성의 잔존 상태와 웅성, 북문지 출입구의 바닥시설 및 축조수법, 고려시대 토성의 유구 등을 확인하고 추진됨
- 공사 착공과 함께 미발굴된 구간의 토사를 제거하면서 북문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한 2차 성벽이 중간 지점에서 1차 성벽과 만나는 형태로 확인됨에 따라 성벽 높이와 길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됨
 - 체성 전면의 계획 지반이 낮아짐에 따라 노출 성벽 높이 변경 등
- 이에 기복원된 북문지와 주변과의 연속성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1, 2차 성벽을 구분할 수 있는 정비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함

<설계검토 자문회의(○○○, ○○○, ○○○, ○○○) / 2023.1.18.>

- 북문 동측성벽 역사성 보존 측면

- 현 변경설계 중 치성 서쪽의 여말선초 성곽과 조선후기 성곽을 함께 복원하는 구간은 초축성벽이 무너진 이후 조선후기에 다시 쌓은 성벽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2개의 성벽을 함께 존치하는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은 홍주읍성의 역사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홍주읍성 정비는 여말선초 성벽 유구는 현황대로 보존하고, 조선후기에 초축성벽 전면에 축조한 성벽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치성을 중심으로 동쪽은 세장방향 면석으로 축조된 여말선초 추정 성벽 쌓기 방식으로 하고, 서쪽은 조선시대 허튼층 쌓기 성벽으로 축조하여 금회 공사구간의 시대구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토성정비는 발굴결과, 일정 높이의 중심 토루가 확인되므로 토성 치성을 포함한 토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 구조적 안정성 측면

- 현 변경설계와 같이 여말선초 성벽에 조선후기 성곽을 덧붙여 축조할 경우, 각기 자립형 구조를 가져야 하나, 조선후기 성곽의 폭이 좁아 구조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향후 붕괴 등의 우려가 큼.
- 따라서, 치성 서쪽의 여말선초 잔존 유구는 보존하고 그 위에 조선후기 성곽 뒷채움 쌓기를 하는 것이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 홍주읍성 축조과정의 설명

- 금회 정비구간은 고려시대 토성, 여말선초 추정 석성, 조선후기 다시 쌓은 성

벽이 병존하는 구간이므로 각 시기별 성곽의 축조 과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금회 정비구간은 고려 토성과 여말선초 추정 석성 및 조선후기 다시 쌓은 석성(치성 및 치성 서쪽)이 병존하는 구간으로, 고려 토성과 여말선초 성곽은 유구를 현황대로 보존하고 조선후기 석성을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각 시기별 성곽의 축조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여말선초 석성과 조선후기 석성은 쌓기방식을 구분하여 입면으로 표현하고, 고려 토성(토성의 치성 포함)은 지반선 하부에서 유구가 확인되므로 성곽의 내탁부에 토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방안[발굴결과 확인된 영정주(직경 30cm) 표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설계(안)에 반영된 신규로 설치하는 자연석배수로는 조선시대의 기존 배수로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대식 배수로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홍성 홍주읍성의 축조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반영토록 하겠음
-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구간은 지반 보강을 반영하되, 고려 토성 유구 부분 등은 유구가 훼손되지 않게 계획토록 하겠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3-1차-002)

2.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사업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경복궁」 내 광화문 월대 복원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당해 사업은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경복궁 광화문 월대를 복원하여 경복궁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원형고증하고 복원을 추진하고자 보고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궁능유적본부장)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 지정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 사업명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사업
- 공사예정금액 : 약 18억원
- 사업내용 : 광화문 월대 복원
 - 규모 및 구조 : 29,700mm × 52,500mm(471.67PY) / 장대석 두벌대
 - 월대: 화강석 지대석 2단, 석난간 위 돌란대 설치, 고막이석 1단 설치, 화강석 장대석 계단 4단, 화강석 노뚝돌 2EA
 - 어도: 화강석 경계석 1단, 소맷돌 2EA, 화강석 장대석 계단 4단(뒷채움석)
 - 동구릉 보관 월대 원부재 보존처리(세척 등) 및 경사로 등 주변정비

(4) 관계전문가 의견

<22.3.17. 1차 자문회의 /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 ○○○(전 문화재위원)>

- 동구릉에 보존된 석재는 사진자료와 형태를 비교했을 때 광화문 월대 석재로 판단
- 월대석(동구릉 신재)와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정전 월대 등의 석질 및 산지에 대한 비교조사 필요
- 부재들에 대한 실측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증하고 결손 부재(보충부재)에 대한 석질 등 보충방안 마련 필요

<’22.4.19. 2차 자문회의 /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 ○○○(전 문화재위원)>

- 현장(동구릉) 보관 월대 부재 확인 결과 형태, 석질, 치석기법 등으로 미루어 광화문 월대 부재로 확인되어, 육축부 난간석 2개는 원 부재로 교체 필요
- 용두석을 전면에 원위치하고 원부재를 양쪽 대칭으로 전면에 사용하고 보충석을 후면에 배치하며, 망실된 부분에 대한 보존처리와 세척 등 필요

<’23.1.5. 3차 자문회의 /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

- 월대는 사진분석, 유구(어도 끝) 레벨을 고려할 시 경사로 계획이 타당함
- 어도는 발굴유구 기준으로 소맷돌의 문양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계단석을 설치
- 추후 발굴(전면 개토) 완료 시 월대 원형 재검토
- 육축부 장대석 노출 원형복원의 경우, 주변 대지 레벨을 고려하여 현황 유지를 권장함
- 월대 주변 광장조성 시 대지레벨, 전기, 상수 등 서울시와의 협의 사항을 명확히 정리할 것
- 해태상은 원위치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월대 남측의 공간을 고려할 때 원위치 고수
- 월대는 원형과 동일하고 복원을 진행하며, 필요시 어도를 제외한 전면 계단부에 임시 경사로 계획

다. 향후계획

- (’23.3월) 월대 전면 제토작업 실시(국립서울문화재연구원 시행)
- (’23.4월~10월) 월대 복원공사 시행

라. 검토의견(공능유적본부)

- 본 사업은 경복궁 복원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와의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월대 복원을 위한 전면 도로가 개설된 상황임
-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월대 주변 광장 조성 시 대지레벨, 관로 매설(배수, 상수) 등은 해당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복원된 문화재(월대)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동구릉 내 보존 중인 원형 석재를 활용하고, 전문가 자문 및 고증조사 결과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접수 8명